

1 서정주의 국화옆에서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남현동 가마터-서정주 시인의집(봉산산방)

2 윤동주의 서시

이상의 집-청전 이상범 가옥-윤동주 하숙집-윤동주문학관-서시 시비

3 김수영의 뿌리

문익환 통일의집-윤극영 가옥-4.19민주묘지-김수영문학관

4 백석의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성북예술창작터-최순우 옛집-조지훈 옛집-성북선잠박물관(판소리 공연)-수연산방-심우장-길상사
*여연경 명창의 판소리 한마당

5 박태원의 천변풍경

무교동 관광공사(박태원 생가터)-삼일빌딩 베를린광장-우미관터-수표교-광장시장

6 신동엽의 종로5가

종로-종로5가 서시오판-창신동 백남준을 기억하는집

7 박인환의 세월이 가면

교보앞 표석-낙원동 책방 마리서사-원서동 집터-고희동가옥

8 이호철의 서울은 만원이다

광흥창 터-공민항 사당-와우정(와우아파트 터)-당인리발전소-경의선책길-김대중기념도서관

9 박완서의 나목

신세계백화점-한전사옥-스카라극장(옛 수도극장)-종로타워(옛 화신백화점)-계동

10 이범선의 오발탄

경리단길-보성여고-해방촌성당-해방예배당-해방촌오거리-신흥시장-108계단-용산고

11 손창섭의 길

필동 한옥마을-남산 문학의집-안중근기념관-회현동

12 임화의 네거리의 순이

한무숙문학관-대학로-낙산-효제초등학교

13 현진건의 운수좋은날

창의문-현진건 집터(옛 무계동)-이광수 홍지동산장-평창동 박종화 가옥-영인문학관

14 최인훈의 소설가 구보씨의 하루

세운상가 옥상-종로타워(옛 화신백화점)-개벽사 터-천도교 중앙대교당-운현궁

15 정비석의 자유부인

적선동-세종로-종각(옛 화신백화점)-을지로입구(옛 아서원)-덕수궁 영성문

16 손장순의 한국인

회현동-남대문시장-대한상공회의소-북창동-공평도시유적전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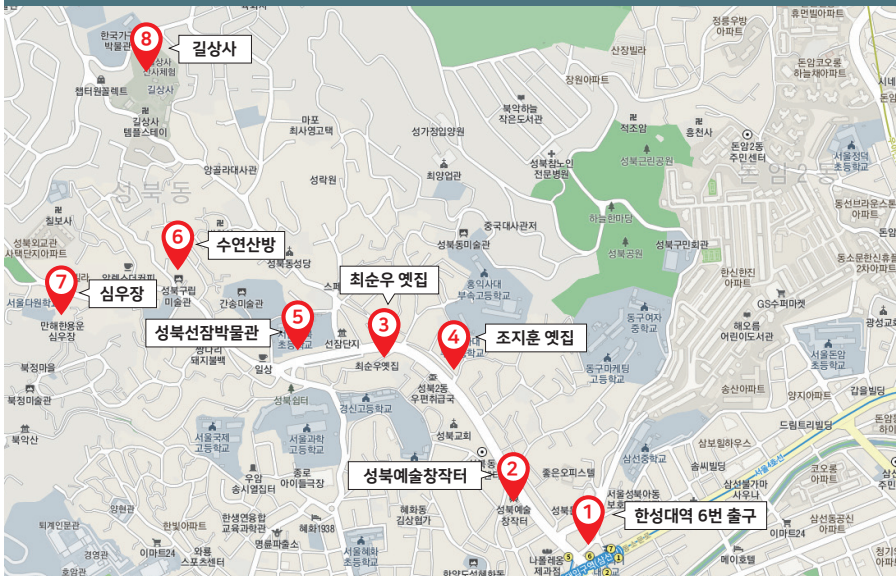
제4회 『백석,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코스 순서

- ①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6번 출구 10시 집결
(50미터 직진 버스정류장과 한중평화의 소녀상 앞)
- ② 성북예술창작터(장승업 옛터)
- ③ 최순우 옛집
- ④ 조지훈 옛집(방우산장)
- ⑤ 성북선잠박물관(판소리 공연)
- ⑥ 수연산방(이태준 옛집)
- ⑦ 심우장(박태원 옛 집)
- ⑧ 길상사



*어연경 명창의 판소리 한마당(11시 ~ 11시 30분)



▶ 일 정 표

| 회차 | 수요일 (10시) | 토요일 (14시) | 주 제 | 코 스 | 해 설 |
|----|--------------|------------------------|---------------------|--|----------------------|
| 1 | 6/12 | | 서정주의 국화원에서 |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남현동 가마터-서정주 시인의집(봉산산방) | 문학평론가 이경철 |
| 2 | 6/19 | | 운동주의 서시 | 이상의 집-청전 이상범 가옥-운동주 하숙집-운동주문학관-서시 시비 | 서울대 방민호교수 |
| 3 | | 6/29 | 김수영의 뿌리 | 문익환 통일외집-윤극영 가옥-4.19민주묘역 시비-김수영문학관 | 문학평론가 진은경 |
| 4 | 7/3 | | 백석의 나와 나타사와 흰당나귀 | 성북예술창작터-최순우 옛집-조지훈 옛집-성북선잠박물관(판소리 공연)-수연산방-심우장-길상사 | 시인 박미산 |
| 5 | | 8/31 (오후7시 ~10시) | 박태원의 천변풍경 | 무교동 관광공사(박태원 생가터)-삼일빌딩 베를린광장-우미관터-수표교-광장시장 | 황미선/신수경 (서도연 연구원) |
| 6 | 9/4 | | 신동엽의 종로5가 | 종묘-종로5가 서시오판-창신동 백남준을 기억하는집 | 시인 박미산 |
| 7 | | 9/14 | 박인환의 세월이 가면 | 교보앞 표석-낙원동 책방 마리서사-원서동 집터-고희동가옥 | 안양대 맹문재교수 |
| 8 | 9/25 | | 이호철의 서울은 만원이다 | 광충창 타-공민왕 사당-와우정(와우아파트 타)-당인리발전소-경의선책갈-김대중기념도서관 | 권해상 (서도연 연구원) |
| 9 | | 10/5 | 박완서의 나목 | 신세계백화점-한전사옥-스카라극장(옛 수도극장)-종로타워(옛 화신백화점)-계동 | 박정아 (서도연 연구원) |
| 10 | | 10/12 | 이범선의 오발탄 | 경리단길-보성여고-해방촌성당-해방예배당-해방촌오거리-신흥시장-108계단-용산고 | 김미선 (서도연 연구원) |
| 11 | 10/23 | | 손창섭의 길 | 필동 한옥마을-남산 문학외집-안중근기념관-회현동 | 한이수 (서도연 연구원) |
| 12 | 10/30 | | 임학 네거리의 순이 | 한무숙문학관-대학로-낙산-효제초등학교 | 전해경 (서도연 연구원) |
| 13 | 11/6 | | 현진건의 운수좋은날 | 창의문-현진건 집터(옛 무계동)-이광수 홍지동산장-평창동 박종화 가옥-영인문학관 | 이지현 (서도연 연구원) |
| 14 | | 11/16 | 최인훈의 소설가 구보씨의 하루 | 세운상가 옥상-종로타워(옛 화신백화점)-개벽사 터-천도교 중앙대교당-운현궁 | 최서향 (서도연 연구원) |
| 15 | 11/20 | | 정비석의 자유부인 | 적선동-세종로-종각(옛 화신백화점)-을지로 입구(옛 아서원)-덕수궁 영성문 | 강영진 (서도연 연구원) |
| 16 | | 11/30 | 손장순의 한국인 | 회현동-남대문시장-대한상공회의소-북창동-공평도시유적전시관 | 심홍식 (서도연 연구원) |

▶ 작가 소개 및 연보



1912년 7월1일 평안북도 정주군 갈산면 익성동에서 부친 백용삼(白龍三)과 모친 이봉우(李鳳宇) 씨의 장남으로 출생. 본명은 기행(藺行) 필명은 백석(白石, 白奭)인데 주로 白石으로 활동. 아버지 백용삼은 한국 사진계의 초기적인 인물로 《조선일보》의 사진반장을 지냈으나, 퇴임 후에는 귀향하여 정주에서 하숙을 쳤다.

▶ 1918년(7세)

오산 소학교 입학.

▶ 1924년(13세)

오산 학교 입학. 동문들의 회고에 의하면 재학시절 오산 학교의 선배 시인인 김소월을 매우 선망했었고, 문학과 불교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 1929년(18세)

오산 고등보통학교(오산학교의 바뀐 이름)를 졸업.

▶ 1930년(19세)

조선일보의 작품 공모에 단편 소설 「그 모(母)와 아들」이 당선되어 등단.
같은 해 3월 동향 출신의 방응모가 경영하는 조선일보사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동경의 청산(靑山/아오야마) 학원 영어 사범과에 입학하여 영문학 전공.

▶ 1934년(23세)

아오야마학원 졸업. 귀국 후 조선일보사에 입사. 출판부 일을 보면서 계열잡지인 《여성(女性)》지의 편집을 맡았다. 백석은 조선일보 지면에 러시아 작가 안톤 체호프의 「임종 체호프의 6월」 1934년 8월 10일부터 9월 12일까지 러시아 비평가 미르스키의 논문 「조이 쓰와 애란문학(愛蘭文學)」을 8회에 걸쳐 발표.

▶ 1935년(24세)

8월31일 시 「정주성(定州城)」을 조선일보에 발표하면서 시인으로 활동. 조선일보사가 창간한 종합지 《조광(朝光)》 편집부 근무.

▶ 1935년(24세)

친구 허준의 결혼식에 참석. 피로연에서 평생의 잊지 못하는 연인인 박경련을 만난다. 1935년 6월 초에 열린 친구 허준의 혼인축하 회식은 허준의 외할머니가 경영하던 낙원동 여관에서 열렸다고 한다. 허준의 신부 신순영은 서울 서대문 죽첨보통학교 교사로 허준의

단짝이던 신현중의 여동생이었다.

회식 자리엔 허준 부부와 백석, 신현중, 그리고 신현중 누나인 신순정의 통영학교 제자 김천금과 박경련, 그리고 경련 외사촌 서숙채가 참석했다. 김천금은 경성여고보, 박경련은 이화고녀, 서숙채는 숙명고녀에 재학 중인 곱고 어여쁜 여학생이었다. 백석은 세 처녀 가운데 박경련을 마음속에 새겨두었다. 경련은 은사인 신순정이 경기도 포천에서 교사 생활을 할 때, 순영의 집을 드나들며 신현중과도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고 한다.

▶ 1936년(25세)

1월 20일 시집 『사슴』을 자비로 100부 발행. 선광인쇄주식회사에서 인쇄. 1월29일 서울 태서관(太西館)에서 개최한 출판기념회의 발기인은 안석영, 함대훈, 홍기문, 김규택, 이원조, 이갑섭, 문동표, 김해균, 신현중, 허준, 김기림 등 11명. 같은 해 4월 조선일보사를 사직하고 함경남도 함흥 영생고보의 영어 교사로 부임. 이때의 생활 소감을 수필 「가재미, 나귀」(동아일보), 「무지개 뻗쳐 만세교」(조선일보)에 발표함. 이 무렵, 함흥에 와 있던 조선 권번 출신의 기생 김진향(본명 김영한)을 만나 교제. 이때 김진향에게 ‘자야(子夜)’라는 아호를 지어준다.

▶ 1937년(26세)

영생고보 교사로 재직하면서 함흥시의 러시아인이 경영하는 상점에 자주 나가 러시아말을 배웠다. 고향에서 결혼하라는 독촉을 받고 혼례식을 했으나 초례만 치른 후 바로 함흥 자야 곁으로 온다.

▶ 1938년(27세)

영생고보 축구부 지도 교사였던 백석은 전선(全鮮)고보 축구대회에 선수들을 인솔하여 참가. 몇 달 후 영생여고보를 사임하고 다시 서울로 와서 《여성》지를 편집.

▶ 1939년(28세)

다시 두번째 결혼식을 올리나 다시 혼자서 서울로 올라온다. 조선일보에 재입사하여 《여성》지의 편집을 돌보다가 다시 사임한다. 친구 허준과 정현웅에게 ‘만주라는 넓은 벌판에 가 시 백 편을 가지고 오리라’는 다짐을 하고 경성을 떠난다. 백석은 1939년 말, 중국 만주로 건너가 1945년까지 5년여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한다. 그의 중국행은 처음이 아니

었다. 함경남도 함흥영생고보 교사 시절인 1938년 5월, 졸업반 학생들을 인솔해 2주간 일정으로 중국행 수학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다. 인천에서 배를 타고 휘순(旅順)에 도착해 신경(長春), 북간도(北間島), 도문(圖們)을 거쳐 함경북도 주을 온천에서 마지막 1박을 하고 함흥으로 돌아온 긴 여행길이었다. 백석은 이 여행을 통해 시인으로서 자유롭게 유랑할 수 있는 땅으로 만주를 생각해 놓았던 것이다

이 해 말부터 만주의 신평(新京, 현재 장춘)시 동삼마로 시영주택의 황씨방에 거처함. 만주국 국무원 경제부에서 잠시 근무함.

1940~41년 신경에서 발행된 ‘만선일보’ 학예부 문예담당 편집자였던 고재기(전 전남대 박물관장)씨가 한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황씨 방’의 황 씨는 당시 만주국 특허 국장을 지낸 황재락 씨다. 황 씨는 자유당 시절 특허청장을 지낸 인물이었고, 아들 종률(자유당 시절 재무장관 역임)씨는 백석과 함께 ‘방응모 장학생’으로 뽑혀 일본에서 유학한 친구였다. 당시 종률 씨는 만주국 경제부 참서관으로 있었기에 백석을 여러모로 도와주었다.

고씨는 “당대의 갑부 윤치호의 조카 윤 모 씨가 당시 만주국 국무원 자료과장으로 있었다”며 “백석은 윤 씨와 마음이 잘 맞아 그 밑에서 외국어 번역 촉탁으로 근무했다”고 회고했다. 신경에서 백석과 같은 집에서 살았다는 작가 송지영(1916~1989 · 전 한국방송공사 이사장)의 술회에 따르면 백석은 그 당시만큼은 고향 부모에게 매달 약간의 송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수입이 괜찮았다. 하지만 백석은 6개월 후 일제가 창씨개명을 강요하자 곧바로 사직한다.

▶ 1940년(29세)

만주국 국무원 경제부에서 6개월 가량 근무하다가 창씨개명 강요로 사직하고, 북만주의 산간오지를 기행한다. 평론 「슬픔과 진실」을 만선일보에 발표함. 함께 신경에 와 있던 시인 박팔양이 발간한 「여수시초(麗水詩抄)」의 출판기념회에 발기인으로 참가한다. 만주 시절 소설가 김사량, 박팔양, 송지영, 안막 등과 교제함. 토마스 하디의 장편 소설 『테스』를 서울 조광사에서 번역 출간. 이 출판 사업차 서울을 잠시 다녀간다.

▶ 1941년(30세)

생계를 위해 측량보조원, 측량서기, 조각인 등의 일을 함.



▶ 1942년(31세)

안동(安東·지금의 단동)으로 옮겨간다. 안동시청에서 일하고 있던 소설가 염상섭이 안동 세관에 자리를 얻어주었다고 한다, 러시아 작가 바이코프의 작품 『밀림유정』 등을 번역. 1942년에 평양으로 건너가 피아니스트 문경옥과 결혼식을 올린 뒤 안동에서 살림 시작. 문경옥이라는 이름을 처음 언급한 이는 백석의 마지막 부인 이윤희다. “남편은 전처가 있었는데, 이름은 문경옥이고 그때의 직업은 피아노를 배워주는 선생이었다.”(2001년 5월 1일 동아일보) 부인 이윤희에 따르면 문경옥은 당시 임신 8개월의 아이를 유산시킨 것으로 인해 시어머니와 사이가 틀어져 이혼했다고 전한다.

▶ 1944년(33세)

일제의 강제징용을 피하기 위해 산간 오지의 광산에 숨어서 일한다. 이때의 경험은 시 「북방에서」에 담겨 있다. 하지만 생활인으로서의 백석을 절실하게 보여주는 작품은 1941년 4월 《조광》에 발표한 시 「귀농」이다.

▶ 1945년(34세)

해방과 더불어 귀국, 신의주에서 잠시 거주하다 고향 정주로 돌아온다. 이윤희와 결혼하여 3남2녀를 둔다.

▶ 1946년(35세)

고당 조만식 선생의 요청으로 평양으로 나와 고당 선생의 통역비서로서 조선 민주당의 일을 돌본다. (고정훈(1920~1988, 백석의 일본 아오야마학원 후배이자 백석 권유로 하얼빈 북만학원대학 노문과에서 수학했던 전 국회의원)의 증언에 의하면 이 해 12월 고정훈이 만주에서 귀국길에 차 중에서 아들이 열병으로 죽었고, 아들의 시신을 안은 채 평양 대동강변 돌각담 집에서 살고 있던 백석을 찾아가 장례를 논의했다고 한다. 당시 백석은 평양 권번 동기 출신의 여성과 동거 중이었다고 한다.)

▶ 1947년(36세)

문학예술총동맹 제4차 중앙위원회 외국문학분과원으로 임명, 러시아작가 시모노프의 『낮과 밤』, 솔로호프의 『그들은 조국을 위해 싸웠다』를 번역 출간. 시 「적막강산」이 그의 벗 허준에 의해 《신천지》에 발표.

▶ 1948년(37세)

파데예프의 『청년근위대』번역함.

▶ 1949년(38세)

솔로호프의 소설 『고요한 돈강 1』을 번역 출간함.

▶ 1950년(39세)

솔로호프의 소설 『고요한 돈강 2』간행.

▶ 1953년(42세)

파블렌코의 『행복』을 번역 출간함.

▶ 1954년(43세)

러시아의 농민시인 『이사코프스키의 시선집』을 연변교육출판사에서 번역 출간함.

▶ 1956년(45세)

아동문학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동화문학의 발전을 위하여」 등의 평론을 발표함.
10월 제 2차 작가대회에서 문학신문 편집위원이 된다.

▶ 1957년(46세)

동화시집 『집게네 네 형제』를 발간함. 《아동문학》 4월호에 동시 몇대지 외 3편을 발표하여 아동문학 논쟁을 촉발시킨다. 「아동문학협소화를 반대하는 위치에 서서」를 발표.

▶ 1958년(47세)

8월에 시평 「사회주의적 도덕에 대한 단상」을 발표.

1959년 이전까지 평양 동대원구역에 살면서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외국문학 번역창작실’에서 러시아 소설과 시 등 번역과 창작에 몰두.

1959년 1월 “붉은 편지” 사건으로 평양에서 추방되어 삼수군 관평리에 있는 국영협동조합에서 양치기 일을 한다.

▶ 1959년(48세)

시 「이른 봄」 등 7편을 《조선문학》에 발표.

▶ 1960년(49세)

12월 북한의 《조선문학》에 시 「전별」 등 2편을 발표.

▶ 1961년(50세)

12월에 그의 마지막 시작품 「돌아온 사람」 등 3편을 《조선문학》에 발표.

▶ 1962년(51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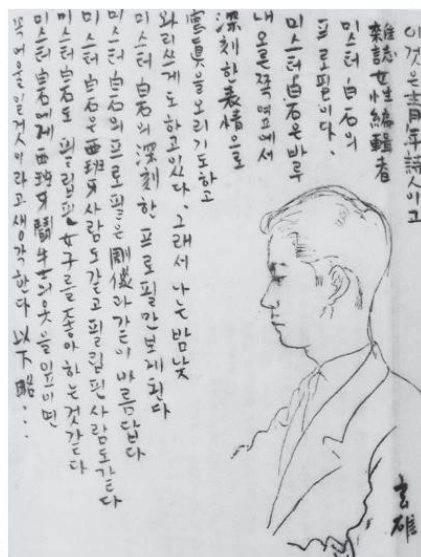
5월 아동문학에 김일성 찬양시 「나루터」 발표. 10월 무렵 북한 문화계 전반에 내려진 복고주의 비판으로 일체의 창작활동이 중단.

▶ 1995년(84세)

1월 사망. 백석의 부인 이윤희 씨가 가족사진과 인민증에 붙어있던 1980년대 백석 사진을 백석연구자인 송준에게 편지를 보내서 《동아일보》(2001년 4월 30일자)에 공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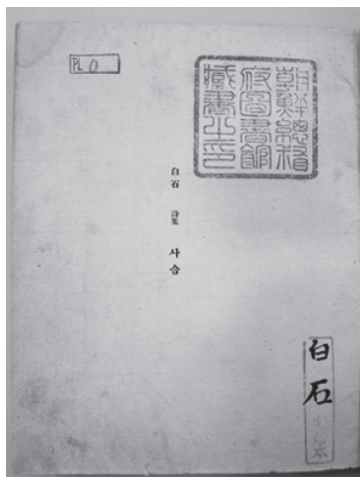


친구 정현웅이 그린 46세 때의 백석



정현웅의 백석 프로파일





1937년 백석의 모습.

100부 한정본으로 찍은 백석 시집 '사슴'(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1936년 1월 20일 선광인쇄주식회사에서 낸 시집 표지엔 '조선총독부도서관장서지인'이 선명하다.
'사슴'은 2005년 계간 '시인세계'의 설문조사결과 '현대시 100년 최고의 시집'으로 뽑혔다.



백석의 졸업한 평북 정주의 오산학교



조선일보 1930년 1월 26일자 '그 모와 아들' 첫 회 연재들

▶ 주요 시편과 시세계

시 작품은 한 시인의 삶과 정신을 보여주는 일차 자료이다. 그 작품 속에는 시인의 삶과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따라서 백석의 생애를 복원하는 데는 그의 시 작품에 대한 정확하고 풍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백석은 1912년 7월1일 평안북도 정주군 갈산면 익성동에서 태어났다. 백석은 부친이 37세 때, 모친이 24세 때 낳은 귀한 첫 아들이었다. 백석 본명은 백기행(襄行), 기연(基衍)으로도 불렸다. 필명은 백석(白石, 白奭)인데 주로 백석(白石)으로 활동했다.

부친의 이름은 시박(時璞), 자는 용삼(龍三)으로 수원 백씨 정주파 시조인 백역(白繹)의 17대손이었다. 평소엔 백용삼으로 불렸으나 후일 백영옥(白榮玉)으로 개명한다. 백용삼은 젊은 시절에 사진기술을 익힌 개화기 사진계의 초창기 인물로 《조선일보》 사진반장을 역임했다고 알려져 있다. 모친 이봉우(李鳳宇)는 서울에서 정주로 시집을 와서 하숙을 쳤다. 유난히 늙어 보이는 백석의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는 젊고 예쁘고 활동적이었다. 음식 솜씨가 정갈해 고당 조만식 선생은 정주의 오산학교 교장 시절 언제나 그 하숙집에 기거했다. 고당과 백용삼은 친분이 두터웠으며 조선일보사 사주 방응모와도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고 한다.

1930년에 조선일보의 작품 공모에 단편 소설 「그 모(母)와 아들」이 당선되어 등단하여 같은 해 3월 동향 출신이며 아버지와 잘 아는 방응모가 경영하는 조선일보사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동경의 청산(靑山/아오야마) 학원 영어 사범과에 입학하여 영문학 전공한다. 일본 사립명문 아오야마(靑山)학원 영어사범과에 입학한 백석은 1학년 때 영어를 마스터한다. 2학년 때는 불어를, 3학년 때는 러시아어를 배웠다.

백석 연구자인 송준(자유기고가)에 따르면 백석은 아오야마학원에 입학한 이듬해인 1931년 5월 15일에 학원 내 교회인 청산학원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 “학교 친구인 아사히의 증언에 따르면 백석은 학교 교회에 출석하며 선교사들과 접촉을 꾸준히 하여 영어실력을 닦은 학생이었으며 아마도 그것이 바로 백석이 영어를 거의 완벽하게 마스터한 비결이었을 것이다. 백석의 3학년 때 주소는 동경 길상사(吉祥寺) 1895번지였다.”(송준 ‘시인 백석 일대기’)

아사히는 백석에 대해 “강렬한 매력을 지닌 우수한 친구이며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한 학생”으로 기억했다. 백석은 4학년 때 교생실습을 나간다. 그는 후일 부임한 함흥영생고보 학생들에게 이때의 경험을 가끔 들려주었기에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1934년 백석은 아오야마학원을 졸업하고 그해 4월에 조선일보사 출판부에 입사한다. 백석은 조선일보사에서 출판부 일을 보면서 계열잡지인 《여성(女性)》지의 편집을 맡는다. 백석은 조선일보 지면에 러시아 작가 안톤 체호프의 「임종 체호프의 6월」을 비롯한 여타 번역 원고들을 발표하기 시작한다. 그 가운데 1934년 8월 10일부터 9월 12일까지 8회에 걸쳐 발표한 러시아 비평가 미르스키의 논문 「조이스와 애란문학(愛蘭文學)」은 백석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싱)는 서부 애란의 가장 문화수준이 낮은 촌락의 전원생활을 그의 주제로 하여 완전히 독창적인 회곡을 냈다. 작중의 인물은 모두 인습에 젖은 농부들의 ‘앵글로 아이리쉬’ 방언(켈트계 영어)을 쓴다. 애란 농부들의 말 가운데 나오는 모든 영어의 정신과는 빙탄(氷炭)의 관계에 있는 것들을 극력 강조하고 또 이런 것들을 논리적인 조화의 체계 속으로 그는 그 문학적 방언을 창조하였다. 이 방언이야말로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아직 사용되어 본 적이 없는 것이다.”(「조이스와 애란문학」)

미르스키는 애란(아일랜드)의 극작가 존 밀링턴 싱이 게일어(Gaelic)가 뒤섞인 영어 방언을 쓰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때문에 백석 역시 고향인 평안도 방언을 보편적인 시어로 써야겠다는 인식에 도달했던 것이다.

백석은 1935년(24세) 8월31일 시 「정주성(定州城)」을 조선일보에 발표하면서 시인으로 활동한다. 그는 당시 그는 정주를 배경으로 한 유년 시절의 추억들을 그만의 방언주의와 독자적인 호흡에 담아 여러 편의 시를 쓰고 있던 중이었다.

산(山)턱 원두막은 비였나 불빛이 외롭다/ 험겔심지에 아즈까지 기름의 쪼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하다// 잠자리 조음든 무너진 성(城)터/ 반딧불이 난다 파란 혼(魂)들 같다/
어데서 말 있는 듯이 크다란 산(山)새 한 마리 어두운 골짜기로 난다// 헐리다 남은
성문이/ 하늘빛같이 흰하다/ 날이 밝으면 또 메기수염의 늪은이가 청배를 팔러 올 것이다
(「정주성」 전문)

백석은 1935년 11월 조선일보사가 창간한 잡지 《조광(朝光)》에 시 「산지」, 「주막」, 「비」

를 비롯해 「자연의 전당 대경성의 풍광」이라는 연재 코너에 산문 「마포」를 발표한다. 백석은 《조광(朝光)》 창간에 거의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것이다. “여의도에 비행기가 뜨는 날, 먼 시골 고장의 배가 들어서는 때가 있다. 돛대 꼭두마리의 팔랑개비를 바라보던 버릇으로 뱃사람들은 비행기를 쳐다본다. 그리고 돛대의 흰 깃발이 말하듯이 그렇게 하늘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럴 때에 영등포를 떠나오는 기차가 한강철교를 건넌다. 시골 운송점과 정미소에서 내는 신년괘력(掛曆)의 그림이 정말이 되는 때다.”(「마포」 부분)

백석은 세 차례에 걸쳐 경남 통영을 다녀간 것으로 여겨진다. 첫 번째는 1935년 6월 어느 날이었고, 「통영」 전문·《조광(朝光)》 1935년 12월호, 1936년 1월 8일 전후에 이루어진 두 번째 통영 행에서 백석은 통영에 가게 된 속사정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통영-남행시초」 부분·조선일보 1936년 1월 23일)

통영 장 낮대들었다// 갓 한뼘 쓰고 건시 한 접 사고 홍공단 땀기 한 감 끓고 술 한 병
받아들고// 화륜선 만져보려 선창 갔다// 오다 가수내 들어가는 주막 앞에/ 문둥이
품파터령 듣다가// 열이레 달이 올라서/ 나룻배 타고 판데목 지나간다 간다-서병직씨에게
(「통영-남행시초2」 전문, 1936 조선일보 3월 6일)

이 시는 백석이 1936년 3월 6일자 조선일보 지면에 발표한 것으로 3월 5일부터 8일까지 하루 한 편씩 연재된 「남행시초」 네 편 가운데 한 편이다. 백석은 그녀의 외사촌오빠인 서병직의 안내를 받아 통영 장에 갔다. 그곳에서 갓과 건시(마른 귤감), 홍공단(붉은 비단)과 술 한 병을 사들고 커다란 기선이 들어오는 선창까지 내려갔던 것이다. 끝에 붙은 ‘서병직씨에게’라는 헌사는 박경련 대신 마중을 나와 통영의 곳곳을 구경시켜 주고 객주집까지 안내했던 그녀의 외사촌 오빠 서병직에 대한 고마움을 나타낸다.

「남행시초」 네 편에 각각 창원-통영-고성-삼천포가 제목에 언급돼 있는 점으로 미뤄볼 때 백석은 신춘 기행시를 쓴다는 명분으로 통영에 들렀던 것이다. 백석은 세 번에 걸쳐 통영을 찾았으나 정작 박경련은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회식 자리에서 한 번 본 처녀에게 반해 머나먼 통영행을 세 번이나 감행했던 백석은 그만큼 순수해보였다.

백석은 1936년에 33편의 시를 묶어 시집 『사슴』을 자비출판으로 발간한다. 「고방」, 「가즈랑집」, 「여우난굴족」 등 수록작품의 목차만 보아도 고유문화에 대한 그의 애착이 얼마나 깊은지 알만하다. 33이란 숫자도 의미심장하다. 3·1 독립선언 때 민족대표의

숫자를 떠올리고, ‘33천(天)’이란 불교적 세계관을 보여주기도 한다.

시집 『사슴』의 세계는 일제가 근대화를 주장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말살하려고 했던 한국의 가치와 전통을 되새기고 그 부활을 꾀하였다. 김기림은 ‘사슴의 세계는 그 시인의 기억 속에 쭈구리고 있는 동화와 전설의 나라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실로 속임 없는 향토의 얼굴이 표정한다.’(1936/1/29, 조선일보) 고 했고, 시인 박용철은 ‘모국어의 위대한 힘’을 재삼 느끼게 되었다고 호평하였다.

백석은 1936년 4월부터 1938년 12월까지 함흥에 거주한다. 신문사를 그만두고 함흥영생고보 영어교사로 옮긴 것이다. 백석보다 1년 먼저 영생학원에 가서 자리를 잡은 평론가 백철의 천거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백석은 새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던지 함흥 거주 1년 7개월 동안 한 편의 시도 발표하지 않다가 1937년 10월에 시 ‘북관(北關)’을 위시한 7편의 작품을 한꺼번에 발표한다.

명대 창난젖에 고추무거리에 막칼질한 무이를 비벼 익힌 것을/ 이 투박한 북관을 한없이 끼밀고 있노라면/ 쓸쓸하니 무릎은 꿇어진다// 시급한 배척한 귀귀한 이 내음새 속에/ 나는 가느스름 여진(女眞)의 살내음새를 맡는다// 얼근한 비릿한 구릿한 이 맛 속에선/ 까마득히 신라 백성의 향수도 맛본다. (「북관」 전문)

백석이 투박한 북관을 자기 삶의 일부로 꺼안으며 향토 세계에 젖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시다. 여기에 ‘여진’과 ‘신라’라는 여취가 보태지고 있음은, 백석이 역사적 인식의 지평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반증한다.

이승원 서울여대 교수는 “백석의 시집 ‘사슴’에 담긴 토속적 세계와 북관 시편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다”며 “성인의 시점에서 관찰한 북관 거주기의 시편은 역사성의 인식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라 진흥왕은 국토 확장이라는 미명 하에 함흥지역에 신라 사람들을 이주시킨 뒤 황초령순수비와 마운령순수비를 세웠다. 백석은 이런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북관’의 시상을 떠올렸던 것이다. 백석은 영생고보 교사들의 회식 장소인 ‘함흥관’에 갔다가 운명적으로 자야를 만나게 된다.

백석의 나이 스물여섯, 김영한은 스물둘 이었다. 자야는 백석은 옆자리에 앉은 진향의 손을 잡고 이렇게 속삭였다. “오늘부터 당신은 나의 영원한 마누라야. 죽기 전엔 우리

사이에 이별은 없어요.”(김자야 에세이 『내 사랑 백석』) 백석은 퇴근하면 으레 진향의 하숙집으로 가 밤을 지새곤 했다고 한다. 어느 날 백석은 진향이 사들고 온 『당시선집』을 뒤적이다가 이백의 시 ‘자야오가(子夜吳歌)’를 발견하고 그녀에게 ‘자야(子夜)’라는 아호를 지어준다. ‘자야오가’는 중국 장안(長安)에서 서역(西域) 지방으로 오랑캐를 물리치러 나간 낭군을 기다리는 여인 자야의 애절한 심정이 담긴 가사였다. 자야는 두 사람끼리 부르는 은밀한 아호였던 것이다. 자야는 ‘내 사랑 백석’에서 이렇게 회고했다. “아마도 당신은 두 사람의 처절한 숙명이 정해질 어떤 예감에서, 혹은 그 어떤 영감에서 이 ‘자야’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던 것은 아닐까.”

자야인 김영한은(1916~1999)은 서울 관철동에서 태어나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할머니와 홀어머니 슬하에서 성장한다. 1932년 그녀의 집안은 금광을 한다는 친척에 속아 가산을 탕진하고 김영한은 16세에 조선 권번(券番·기생조합)에 들어간다. 기명(妓名)은 진향(眞香)이며 권번에서 정악계(正樂界)의 대부였던 하규일 선생 문하생으로 여창가곡, 궁중무 등을 배웠다.

1937년 겨울, 백석은 자야에게 만주로 가서 자유롭게 살자고 제의했으나, 자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홀로 경성으로 떠나가자 영생고보 교사직을 버리고 경성으로 와 자야와 동거한다. 자야가 먼저 경성으로 간 후 백석은 1938년 6월, ‘조선축구학생연맹전’에 참가하기 위해 영생고보 축구부 학생들을 인솔해 경성으로 축구 원정을 온다. 일주일간의 출장 동안 그는 학생들을 여관에 투숙시킨 채 정작 자신은 청진동의 자야 하숙집에서 밤을 보냈던 것이다. 그날 밤 학생들은 경성의 호화찬란한 밤 풍경에 현혹된 나머지 극장으로, 찻집으로 쏘다니다가 풍기 단속교사들에게 적발돼 영생고보에 그 명단이 통보되고 말았다. 그러자 학교 당국은 징계 차원에서 백석을 영생여고보로 전근시킨다. 이에 백석은 미련 없이 사표를 내고 경성으로 올라왔던 것이다.

백석은 청진동 자야의 집에서 본격적으로 살림을 시작한다. 혼례만 치르지 않았을 뿐 두 사람은 거처를 명륜동으로 옮기며 부부처럼 생활했다. 백석과 자야가 동거한 기간은 3년. 백석은 이 시절에 사랑을 주제로 한 여러 편의 서정시를 쓰는데, 그 중 유명한 것이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이다.

백석의 부모는 기생과 동거하는 아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나머지 백석의 혼례를 서두른다. “39년 1월에 백석은 장가를 들러 충북 진천에 두 번이나 갔다가 왔다. 1월 6일 금요일 소한(小寒)에 내려가 며칠을 머물다 서울로 와서 1월 21일 토요일에 다시 내려가면서 대한

(大寒)을 맞이했던 것이다. 이처럼 진천에 내려가서 혼례를 치르고 올라왔는데 이때 신부는 역시 부잣집 딸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모가 강요해서 치른 결혼식은 그 후 신혼생활이 길지 않고 별거한 것으로 알려졌다.”(송준의 『시인 백석 일대기』)

백석은 1939년 말, 중국 만주로 건너가 1945년까지 5년여 동안 떠돌이 생활을 했다. 1940년 6월 《인문평론》에 발표한 시 「수박씨, 호박씨」의 첫 구절 “어진 사람이 많은 나라에 와서/ 어진 사람의 짓(짓)을 어진 사람의 마음을 배워서/ 수박씨 닮은 것을 호박씨 닮은 것을 입으로 앞니빨로 밝는다”에 등장하는 어진 사람이란 그 자신이 동경했던 노자와 공자와 도연명의 땅에 살게 됐다는 일종의 신고식 같은 시편이다.

만주 생활은 곤궁하기 짝이 없었다. 그런 백석에게 도움을 준 대표적인 인물이 만선일보 편집국장 홍양명 씨다. 일본 와세다 대학 영문과 출신으로 만선일보를 거쳐 조선일보 외신부장, 경성방송국 초대 방송국장을 역임했던 홍 씨는 안수길 같은 작가들도 원고료 없이 글을 쓰던 만주 시절에 망명시인이라 할 백석에게는 용돈을 대주기 위해 청탁을 했다. 백석은 그 덕분에 《만선일보》에 번역소설 「훗새벽」을 비롯해 「요설」, 「슬픔과 진실」 등 산문 3~4편을 실을 수 있었다.

백석은 일제의 강압이 거세지자 북만주의 산간 오지를 기행하며 원주민인 오로촌과 교류한다. 이때의 경험은 시 「북방에서」에 담겨 있다. 하지만 생활인으로서의 백석을 절실하게 보여주는 작품은 1941년 4월 《조광》에 발표한 시 「귀농」이다.

백구돈(白拘屯)의 눈 녹이는 밭 가운데 땅 풀리는 밭 가운데/ 촌부자 노왕(老王)하고
같이 서서/ 밭최쪽에 즈부리진 땅버들의 버들개지 피어나는 데서/ 벌은 장글장글 따사
롭고 바람은 솔솔 보드라운데/ 나는 땅임자 노왕한테 석상디기 밭을 얻는다// 노왕은
집에 말과 나귀며 오리에 닭도 우울거리고/ 고방엔 그득히 감자에 콩 곡식도 들어 쌓이
고/ 노왕은 채매도 힘이 들고 하루 종일 백령조(百鈴鳥) 소리나 들으려고/ 밭을 오늘
나한테 주는 것이고/ 나는 이제 귀치않은 측량도 문서도 싫증이 나고/ 낮에는 마음
놓고 낮잠도 한잠 자고 싶어서/ 아전노릇을 그만두고 밭은 노왕한테 얻는 것이다

(「귀농」 부분)

「흰 바람벽이 있어」 「국수」 「촌에서 온 아이」가 《문장》지에, 「조당에서」 「두보나 이백
같이」가 《인문평론》에 각각 발표된 것도 1941년 4월이었다.

백석은 1942년부터 1946년에 걸쳐 시를 썼지만 단 한 편도 발표하지 않았다. 그만큼 일제의 감시가 엄중한 시기였다. 백석은 1945년 해방을 맞아 안동에서 압록강을 건너 신의주로 온다.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 끝에 해매이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나는 어느 목수네 집 흰 샷을 깎,/ 흰 방에 들어서 전을 붙이었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같이 생각하며/ 밑옹 배기에 복덕불이라도 담겨 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쪼며 재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싸김질하는 것이었다./ (중략) /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 끼며, 무릎을 꿇어 보며,/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위 옆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이아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부분)

이 시는 백석이 1948년 10월 창간된 ‘학풍’에 발표한 해방공간에서의 마지막 작품이다. 월간 종합지 성격의 《학풍》은 을유문화사에서 발간했는데 편집 주간은 조풍연(1914~1991)이었다. 잡지 뒤에 붙은 출판부 소식엔 “서정시인 백석의 백석시집이 출간된다.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시인들은 과연 얼마나 이 고고(孤高)한 시인에 육박할 수 있으며 또 얼마나 능가할 수 있었더라. 흥미있는 일이다”라는 구절이 있다. 을유문화사에서 백석시집 간행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시집은 간행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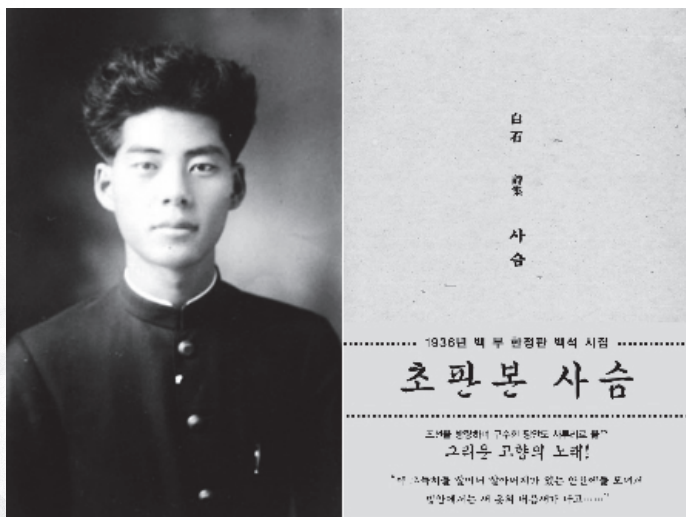
백석의 시는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으로 마침표를 찍는다. 한국전쟁으로 말미암아 남북은 분단됐고 백석은 북한에 남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석 문학의 특징은 상실되어 가는 고향의식의 회복, 이를 통한 제국주의 문화의 극복, 전통 문화유산에 대한 따뜻한 긍정, 백석 특유의 방언주의와 북방정서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백석의 시세계는 사랑시 뿐만이 아니라 제국주의자들의 극악한 농촌파괴 정책에도 불구하고 혈연과 거주지로 함께 엮어지는 생활공동체의 끈끈한 유대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시는 첫째 고향을 소재로 한 작품이 많을 뿐 아니라 둘째로 작품 속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인물들을 가난한 사람, 삶의 고통 속에 허덕이는 서민에서 포착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막집의 왁자지껄한 떠돌이 장사꾼들, 결핵을 앓고 있는 객주 집 딸의 창백한 얼굴, 달밤에 목매어 죽은 수절과부, 남편과 딸을 잃어버리고 女僧(여승)이 된 어느 가련한 여인, 일본인 주재소장 집에서 식모 살던 소녀 등의 쓸쓸한 광경으로 나타난다. 또한 일제 강점기에 우리음식을 끊임없이 호명하는 것도 하나의 인제에 대한 저항으로 볼 수 있다.

백석은 그 시대 모든 지식인들과 같이 1930년대 한국인이 당면한 문화적 위기를 심각하게 고심한 결과 서술 떠런 시기에 사라져가는 우리문화를 간직하면서 이를 시화한다는 것은 곧 제국주의 문화의 극복을 넘어 일제에 저항하는 일이다. 시인 백석은 영문학을 공부한 일본유학생 출신이었지만 귀국 후 그의 활동은 이처럼 민족 언어를 통한 민족본체성의 유지와 확보를 위한 노력에 바쳤다. 그의 시는 단 한마디도 민족주체를 말하지 않았으나 동시대 어느 누구의 시보다도 더욱 진한 민족주체의 정신적 토양을 확고히 끌어안고 있었다. 그의 시에서는 1930년대 중후반에서 1940년대 초반까지의 황량한 시대를 배경으로 전형적인 한국인의 표상들이 그려져 있다.

백석의 시세계는 이처럼 넓다. 한정된 지면으로 인하여 이글에서는 백석의 사랑 시만을 다룰 것이다.



▶ 통영 시편



▶ 교사시절의 백석과 이화여고보생 박경련

백석은 특이한 시인이기도 하다. 평생 한 여인을 짝사랑하면서도 기생과 동거 생활도 하고 결혼도 여러 번 했다. 이 글에서는 백석을 평생 잊지 못하다 저 세상을 간 자아의 길상사로 인해 여성에 관련된 시편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백석은 오산고보를 졸업하고 경제사정 때문에 상급학교를 진학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이듬해인 1930년 1월 조선일보 신년현상문에 「그 모와 아들」이 당선되어서 계초 방응모의 장학금 지원을 받아 동경 청산학원 영어 사범과에 입학한다. 1934년 청산학원을 졸업하고 귀국하여 조선일보 교정부 기자로 근무한다.

1935년 6월 친구 허준과 신현중의 여동생 신순영의 결혼식 피로연에서 평생 잊지 못하는 여인인 경남 통영 출신인 박경련을 만난다. 결혼식 피로연에는 허준의 친구인 백석과 신현중이 참석하였고, 신현중 누님의 제자인 경기여고보를 다니는 김천금과 이화 여고보를

다니던 박경련이 참석했다. 스물 네 살인 백석이 박경련에게 연모의 감정을 갖고 그해 12월 《조광》에 다음 시 「통영」을 발표한다.

옛날엔 통제사가 있었다는 낡은 항구의 처녀들에겐 옛날이 가지않은 천희(千姬)라는 이름이 많다.

미역오리같이 말라서 굴껍질처럼 말없이 사랑하다 죽는다는

이 천희의 하나를 나는 어느 오랜 객주(客主)집의 생선 가시가 있는 마루방에서 만났다.

저문 유월(六月)의 바닷가에선 조개도 울을 저녁 소리방등이 불그레한 마당에 김냄새 나는 비가 내렸다.

- 「統營」(1936.1 시집 사슴)



▶ 통영의 백석 시비

백석은 박경련을 보고 나서 통영을 세 번 방문한다. 그는 1935년 6월, 1936년 1월 8일, 친구 신현중과 통영을 방문했는데 박경련을 만나지 못하고, 1936년 12월 겨울방학 때 허준과 함께 통영에 가서 청혼했다가 거절당한다. 박경련은 1937년 4월에 백석의 친구

인 신현중과 결혼함으로써 백석의 박경련에 대한 사랑은 짝사랑으로 끝난다. (송 준편, 「시인 백석의 간략한 일대기」, 『백석시전집』, 학영사, 1995. 318면) 이 세 차례의 방문으로 백석은 여섯 편의 시를 발표한다. 통영시편이 세편, 「창원도(昌原道)」, 「고성가도(固城街道)」, 「삼천포(三千浦)」이다. 이 시들은 사랑하는 여인인 박경련이 통영에 살았기 때문에 창작된 것이다. 그의 이러한 사랑의 아픔과 그리움을 담긴 장소가 바로 “통영”이다.

화자는 바다를 끼고 있는 낡은 항구에 와 있다. 이 항구엔 천희(千姬)라는 이름의 처녀가 많다. 그런데 이 처녀들은 ‘미역오리같이 말라서 굴껍질처럼 말없이 사랑하다 죽는’ 비극적인 사랑의 주인공들이다. 화자는 그 비극적인 사랑의 주인공 중 하나를 ‘오랜 객주(客主) 집의 생선 가시가 있는 마루방’에서 만났다고 한다.

‘천희의 하나’를 사랑한 화자는 이제는 만날 수 없거나 볼 수 없는 대상인 그녀를 생각하며 저물어 가는 유월의 바닷가를 울 것 같이 바라본다.

지금 당신께서 보내주신 맑고 고운 수선화 한 폭을 들여다봅니다. 나는 이제 이 긴긴 밤을 당신께 이 노란 슬픔의 이야기나해서 보내도 좋겠습니까. 남편 바닷가 어떤 낡은 항구의 처녀하나를 나는 좋아하였습니다. 머리가 까맣고 눈이 크고 코가 높고 목이 패고 키가 호리낭창하였습니다. 그가 열 살이 못되어 쪼디쪼은 그 아버지는 가슴을 앓아 죽고 그는 아름다운 젊은 흙어머니와 돌이 동지선달에도 눈이 오지 않는 따뜻한 이 낡은 항구의 크나큰 기와집에서 그늘진 풀같이 살아왔습니다. 어느 해 유월이 저물게 실비 오는 무더운 밤에 처음으로 그를 안 나는 여러 아름다운 것에 그를 건주어 보았습니다. 당신께서 좋아하시는 산새에도 해오라비에도 또 진달래에도 그리고 산호에도……그러나 나는 어리석어서 아름다움이 닮은 것을 골라낼 수 없었습니다.

(백석, 「편지」, (『조선일보』, 1936.2.22.), 『백석전집』, 김재용 엮음.

이 글은 신석정의 「수선화」에 대한 백석의 화답 글이다. 백석은 자신의 시집을 신석정에게 보내고 신석정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시 「수선화」를 백석에게 보낸다. 백석은 이에 답으로 이 「편지」라는 글을 보냈다고 한다.

「편지」를 보면 젊은 흙어머니와 돌이 동지선달에 눈도 잘 내리지 않을 만큼 따뜻하고 낡은 항구의 크나큰 기와집에서 그늘진 풀처럼 조용히 살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어느 해 유월이 저물게 실비 오는 무더운 밤에 처음으로 그를 알게 되고

시인은 여러 아름다운 것에 그를 견주어 보았다고 한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시 「통영」의 ‘천희의 하나’는 시인이 사랑하고 싶었던 여인임을 짐작할 수 있다.

舊馬山の 선창에선 좋아하는 사람이 울며 나리는 배에 올라서 오는 물길에 반날/가
나는 고당은 갓갓기도 하다//바람 맛도 짭짤한 물맛도 짭짤한/전복에 해삼에 도미 가재
미의 생선이 좋고/파래에 아개미에 호루기의 젓갈이 좋고//...//자다가도 일어나 바다
로 가고 싶은 곳이다/.../처녀들은 모두 漁場主한테 시집을 가고 싶어한다는 곳/... 돌각
담에 가웃하는 처녀는 錦라는 이 같고//蘭이라는 이는 明井골에 산다는데/明井골은
산을 넘어 柵柵나무 푸르른 甘露 같은 물이 솟는 明井샘이 있는 마을인데/샘터엔 오구
작작 물을 길는 처녀며 새악시들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그이가 있을 것만 같고/내가
좋아하는 그이는 푸른 가지 붉게붉게 柵柵꽃 피는 철엔 타관 시집을 갈 것만 같은데/긴
토시 끼고 큰머리 얹고 오불고불 넘옛거리로 가는 여인은 평안도서 오신 듯한데 柵柵
꽃 피는 철이 그 언제요/ ...나는 이 저녁 울 듯 울 듯 閑山島 바다에 뱃사공이
되어가며/영 낮은 집 담 낮은 집 마당만 높은집에서 열나를 달을 업고 손방아만 짙는
내 사람을 생각한다.

- 「統營- 남행시초2」 (1936.1.23, 《조선일보》)

예전부터 한국인들이 몰려 살던 곳을 구마산이라고 하고 19세기 말에 마산이 개항해서
일본일과 러시아인이 들어와 새로 시가지를 형성한 곳을 신마산이라고 한다. 구마산의
선창에선 좋아하는 사람이 울며 내리는 연모의 감정과 비애의 예감이 결합되는 곳이자
이별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화자에겐 자다가도 일어나 가고 싶은 바다와 가깝고
그리운 장소가 구마산의 선창이다.

구마산은 바람 맛, 물 맛, 가재미 맛, 젓갈 맛, 새벽녘의 거리와 밤바다 풍경, 그리고
어장주에게 시집가고 싶어 하는 처녀들이 사는 곳이다. 화자는 이곳에서 잊지 못할 그녀를
떠올린다. 산을 넘어 동백나무 푸르른 감로 같은 물이 솟는 명정샘이 있는 명정골은 내가
좋아하는 그이가 있을 것만 같고 그녀는 푸른 가지 붉게 붉게 동백꽃 피는 철엔 타관
시집을 갈 것만 같은 곳이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 하지 못한 나는 울 듯 울 듯 뱃사공이
되어간다.

영 낮은 집 담 낮은 집 높다란 마당에 보름달에 가까운 크고 밝은 달을 업고 선 그녀를

생각하는 화자의 마음이 절절하다. 백석은 란의 어머니에게 청혼을 거절당하고 친구인 신현중에게 란을 빼앗긴 후 다음과 같은 시를 쓴다.

밝은 봄철날 따디기의 누긋하니 폭석한 밤이다
거리에는 사람두 많이 나서 흥성흥성 할 것이다
어쩐지 이 사람들과 친하니 싸다니고 싶은 밤이다

그렇것만 나는 하이얀 자리 위에서 마른 팔뚝의
셋파란 핏대를 바라보며 나는 가난한 아버지를 가진것과
내가 오래 그려오던 처녀가 시집을 간 것과
그렇게도 살뜰하든 동무가 나를 버린 일을 생각한다

또 내가 아는 그 몸이 성하고 돈도 있는 사람들이
즐거이 술을 먹으려 다닐 것과
내 손에는 신간서(新刊書) 하나도 없는 것과
그리고 그 ‘아서라 세상사(世上事)’라도 들을
유성기도 없는 것을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내 눈가를 내 가슴가를
뜨겁게 하는 것도 생각한다

- 「내가 생각하는 것은」, (1938,4) 여성

사랑하는 여인을 가장 절친한 친구에게 빼앗긴 백석의 마음은 어땠을까? “남쪽 바닷가 어떤 낡은 항구의 처녀 하나를 나는 좋아하였습니다. 머리가 까맣고 눈이 크고 코가 높고 목이 패고 키가 호리낭창하였습니다”라던 그녀를 백석은 영영 잃어버린 것이다.

‘가난한 아버지를 가진 것과 내가 오래 그려오던 처녀가 시집을 간 것과 그렇게도 살뜰하던 동무가 나를 버린 일’을 생각하던 백석은 조선일보를 그만두고 함흥 영생고보 영어선생으로 부임한다.

▶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영생고보 교사 시절의 백석(왼쪽)과 함께
재직했던 시 '파초'의 시인 김동명.



▶ 영생고보 운동장에서 축구부원과 함께한 백석(1937년 가을)



▶ 영생고보 교무실에서 교재 연구 중인 백석(앞쪽 가운데)

눈이 폭폭 내리는 밤 화자는 사랑하는 여인인 나타샤를 생각하며 홀로 앉아 소주를 마시고 있다. 소주(燒酒)를 마시며 화자는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폭폭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뱀새가 우는 깊은 산골로 가 오막살이에 살고자 한다.

화자는 깊은 산골에서 오랜 유랑생활을 마치고 세상을 버리고 행복한 삶을 살고자하는

데 그 산골엔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아름다운 나타샤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런데 나타샤는 나타나지 않고 화자 혼자 소주를 마시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과연 아름다운 나타샤는 누구인가?

아름다운 나타샤는 “천희의 하나를 나는 어느 오랜 객주집의 생선가시가 있는 마룻방에서 만났다”(『통영』1936.1.23.) “샘터엔 오구작작 물을 끄는 처녀며 새악시들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그이가 있을 것만 같고/내가 좋아하는 그이는 푸른 가지 붉게 붉게 동백꽃 피는 철엔 타관 시집을 갈 것만 같은데/난이라는 이는 명정골에 산다는데”(『통영』2), “나의 정다운 것들 가지 명태…모밀국수 남치마 자개짚세기 그리고 천희(千姬)라는 이름이 한없이 그리워지는 밤이로구나”(『아우소회(夜雨小懷)』 “언제나 꼭 같은 벅타이를 매고 고은 사람을 사랑하는 탓이다”(『내가 이렇게 외면하고』)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어니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지막한 집에서/그의 지아비와 마주앉어 대구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흰 바람벽이 있어』)에서 언급된 여인들과 연장선상에 있다.

백석이 함흥 영생고보에서 기생 진향을 만난 것은 1936년 가을, 동료교사의 송별회에서였다. 한 여인에게 마음이 팔려 속을 절절 끓이고 있었을 무렵인데 그는 진향을 만난 첫 자리에서 “당신은 나의 영원한 마누라”라고 말을 한 것이다.

어느 날 책방에서 진향이 「자야오가(子夜吳歌)」라는 제목이 붙은 당시선집(唐詩選集)을 사 왔다. 백석은 그 책을 펼쳐 이백의 시를 읽더니 진향에게 “당신에게 아호(雅號)를 하나 지어줄 거야. 이제부터 ‘자야’라고 합시다.” 시 속의 자야는 중국 동진(東晉)의 여인으로 변방에 병역을 위해 나간 남편을 기다리며 애를 태운다. ‘자야’라는 이름은 진향의 삶에도 비슷한 숙명을 드리우며 기다리고 있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을 때 자야는 흥남부두를 백석과 함께 여행할 꿈에 부풀어 있었다. 그때 백석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울 아버지가 방학이 시작되는 대로 곧장 올라오라는 편지가 왔다’고 하며 떠나갔다. 백석은 떠난 뒤 날마다 편지를 보냈다. 그러다가 한동안 편지가 뚝 끊어졌다.

백석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는 마음에 깊이 두고 있었던 다른 여자와 결혼할 공리를 하고 있었다. 백석은 그해 겨울 허준과 함께 통영으로 청혼하러 갔다. 서울에서 통영까지 가는 길은 멀었다. 삼랑진행 완행열차를 타고 7시간 이상을 가서 구마산행 시골

버스를 갈아타야 했고, 다시 통통배로 통영에 닿으면 거기에서부터 명정까지는 걸어가야 하는 길이었다. 백석은 갓을 쓰고 술을 받아들고 땀 한방울 흘려서 박경련의 어머니에게 청혼을 하나 박경련의 어머니에게 거절당하고 돌아왔다. 진향에게 매일 편지를 쓰다가 뚝 끊어진 때가 바로 그 무렵이었다. 정상적인 맥락으로 보면 고개가 갸웃거려질 수 있는 대목이다. 두 여자를 동시에 사랑했거나 아니면 진향에게 보인 애정의 표현은 단지 현실적으로 위안을 받기 위해 꾸며낸 태도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진향은 백석이 자신을 사랑한 점에 대해서는 추후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 후 부모의 강권으로 백석이 혼사를 치렀고 진향은 고향인 서울로 돌아왔다. 그 이후에도 백석과 진향은 몇 차례 이별과 재회를 반복했는데, 그 사이 백석은 두 번의 혼인을 하고도 진향에게 태연히 돌아왔다.

진향이 청진동에 숨어 살고 있는 3개월쯤 뒤에 백석의 친필 메모를 든 심부름꾼이 찾아왔다. 그리고 백석이 나타나서 하룻밤을 지내고는 부랴부랴 함흥 천리 길을 돌아갔다. 백석이 가면서 남긴 누런 미농지 봉투에 친필로 쓴 시 「나와 나타사와 흰 당나귀」가 들어 있었다. 이 시를 읽고 자야는 다시 백석을 평생 잊지 못하게 되었다.



▶ 1930년대의 자야와 궁중무 춘앵무를 추는 자야의 모습이 담긴 엽서



▶ 만년의 김영한



진향과는 달리 백석은 한 여자에게 정착하지 못한 시인이었다. 란(蘭)을 그리는 마음을 억누르고 있던 중 백석은 새로운 여인을 만나게 된다. 그녀는 바로 백석에게 가르침을 받던 제자 김진세의 누이였다. 김진세의 누이는 상당한 미모의 여성이었다. 백석을 흠모하고 사랑한 그녀는 영혼 사람으로 집안도 상당히 부자였다. 백석은 그녀의 집에 정식으로 청혼했으나 백석에 대해서 알아 본 뒤 진세네 집에서 거절했다. 그 이유는 백석이 몸이 약하고 또 돈도 없고 기생과 가깝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의 부모에 대한 소문도 한 몫 하였다. 그런 와중에 태어난 시가 바로 「나와 나타샤와 흰당나귀」라는 시였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나타샤가 자아인지, 김진세의 누이인지, 첫사랑 박경련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밤은 폭폭 눈이 나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폭폭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燒酒)를 마신다
소주(燒酒)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밤 흰당나귀타고
산골로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산골로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푹푹 나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올리 없다
언제벌써 내 속에 고조곤하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같은건 더러워 버리는것이다

눈은 푹푹 나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데서 흰당나귀도 오늘밤이 좋아서 응양 응양 울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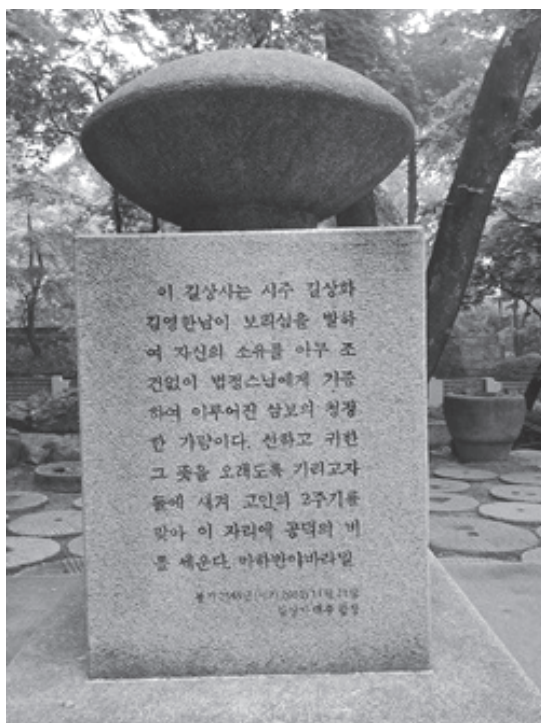
- 「나와 나타샤와 흰당나귀」, (1938.3 여성 3권 3호)

자야는 죽는 날까지 백석의 사랑을 굳게 가슴에 담고 쓸쓸히 살아갔다. 자야는 1953년 중앙대 영문학과를 졸업했고 1955년에 대원각을 인수했다. 그녀는 왜 백석을 따라 만주로 가지 않았느냐는 류시화 시인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영 헤어질 줄 알았다면 따라 갔겠지. 잠깐인 줄 알았어요.” 자야는 “38선이 터지면 기어서라도 가서 산소를 찾을 거예요. 50년 만에 담배를 끊었는데 니코틴보다 그리운 것이 그 사람이에요.”

요정 대원각을 접고 미국에 가서 살던 자야는 1987년 우연히 법정 스님의 설법을 듣고 대원각을 시주하려고 했지만, 법정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1995년 법정이 고집을 꺾으면서 2년 동안의 개보수를 거쳐 대원각은 법정이 소속한 전남 송광사의 말사인 길상사로 문을 열었다.

자야가 대원각 터를 법정 스님에게 기탁할 당시 약 2만3,140㎡(7,000평)였던 부지의 시가는 금액으로는 약 1,000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그녀에게 거금 1,000억 원이라고 해봐야 휴전선에 가로막혀 만날 수 없는 옛 연인 백석의 시 한 줄에 비하면 의미 없는 액수였다. 자야는 ‘그깟 1,000억 원, 백석의 시 한 줄만 못하다’고 말한 뒤 미련 없이 대원각 터를 기증했다.

1999년 11월 자야는 ‘나 죽으면 눈 많이 오는 날 뼈를 이곳에 뿌려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 유언대로 그녀의 유골은 경내에 뿌려졌고 지금은 공덕비 하나만 남아 있다.



▶ 백석의 행적

백석은 1939년 자야와 동거하면서 《여성》지 편집 주간 일을 하다가 사직하고 고향인 평북 지역을 여행하였다. 1940년 만주의 신경(神京, 지금의 장춘(長春))으로 가서 3월부터 만주국 국무원 경제부의 말단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창씨개명의 압박이 계속되자 6개월 만에 그만두었다. 6월부터 만주 체험이 담긴 시들을 발표하기 시작하였고, 10월 중순 자신이 번역한 토마스 하디의 장편소설 『테스』의 출간을 앞두고 교정을 보러 경성에 잠시 다녀갔다. 「목구, 「수박씨, 호박씨, 「북방에서, 「허준」 등의 시를 발표하였다. 1941년 「귀농, 「국수, 「흰 바람벽이 있어」 등을 발표하였다.

1942년 만주의 안둥(安東) 세관에서 일하였다. 그리고 평양으로 건너가 피아니스트 문경옥과 결혼식을 올린 뒤 안둥에서 살림을 시작했다. 문경옥이라는 이름을 처음 언급한 이는 백석의 마지막 부인 이윤희이다. “남편은 전처가 있었는데, 이름은 문경옥이고 그때의 직업은 피아노를 배워주는 선생이었다.”(2001년 5월 1일 동아일보)

부인 이윤희에 따르면 문경옥은 당시 임신 8개월의 아이를 유산시킨 것으로 인해 시어머니와 사이가 틀어져 이혼했다고 한다.

1945년 해방이 되자 신의주에서 잠시 거주하다 고향 정주로 돌아온 백석은 이윤희와 결혼하여 3남2녀를 두었다. 10월에 조만식을 따라 소설가 최명익, 극작가 오영진 등과 ‘김일성 장군 환영회’에 참석해 러시아어 통역을 맡았다. 1946년 북조선예술총동맹이 결성되었으나 처음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가 1947년 문학예술총동맹 외국문학 분과위원이 되었다. 이때부터 러시아 문학을 번역하는 일에 매진하였다. 허준이 백석이 해방 전에 쓴 시 「적막강산, 「마을은 맨천 구신이 돼서」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1947년 말부터 1948년 가을에 걸쳐 서울의 잡지에 실었다. 1948년 『학풍』 창간호에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을 발표하였다. 남쪽 잡지에 마지막으로 발표한 시였다.

1949년 솔로호프의 『고요한 돈강』을 번역하는 작업에 몰두하였다. 1953년 전국작가예술가대회 이후 외국문학 분과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번역에 집중하였다. 1956년 동화시 「까치와 물까치, 「집게네 네 형제」를 발표하였고, 「동화문학의 발전을 위하여, 「나의 향의, 나의 제의」 등의 산문을 발표하였다. 10월에 열린 제2차 조선작가대회 이후 조선작

가동맹 기관지 『문학신문』의 편집위원으로 위촉되었고 『아동문학』과 『조소문화』 편집위원을 맡으며 창작활동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1957년 동화시집 『집게네 네 형제』를 정현웅의 삽화를 넣어 간행하였고, 동시 「멧돼지」, 「강가루」, 「기린」, 「산양」을 발표한 뒤 북한 아동문학계에서 격렬한 비판을 받았다. 6월에 「큰 문제, 작은 고찰」과 「아동문학의 협소화를 반대하는 위치에서」를 발표하면서 아동문학 논쟁이 본격화되었고, 9월 아동문학토론회에서 자아비판을 하였다. 1958년 시 「제3인 공위성」을 발표하였고, 9월의 ‘붉은 편지 사건’ 이후 창작과 번역 등 문학적 활동이 대부분 중단되었다.

1959년 양강도 삼수군 관평리에 있는 국영협동조합으로 내려가 축산반에서 양치는 일을 맡았다. 삼수군 문화회관에서 청소년들에게 시 창작을 지도하면서 농촌 체험을 담은 시 「이른 봄」, 「공무여인숙」, 「갯나물」 등의 시를 발표하였다. 1960년 1월 평양의 『문학신문』 주최 ‘현지 파견 작가 좌담회’에 참석하였고, 시 「눈」, 「전별」 등과 동시 「오리들이 운다」, 「앞산 평, 뒷산 평」 등을 발표하였다. 1961년 「탑이 서는 거리」, 「손벽을 치는」 등의 시를 발표하였다. 1962년 시 「조국의 바다여」, 「나루터」 등을 마지막으로 발표하였다. 10월 북한 문화계에 북고주의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창작활동을 일절 하지 못하게 되었다.

1995년(84세) 1월 사망. 백석의 부인 이윤희 씨가 가족사진과 인민증에 붙어있던 1980년대 백석 사진을 백석연구자인 송준에게 편지를 보내서 《동아일보》(2001년 4월 30일자)에 공개되었다.



1980년대 중반에 촬영한 가족사진으로 앞줄 오른쪽에 백석과 그 옆의 부인 이윤희씨. 뒷줄은 둘째 아들과 막내딸. 이 사진으로 백석이 1963년 북한에서 숙청당해 사망한 것이 아니라 80년대까지 살아 있었음이 증명되고, 실제로 1996년까지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기, 〈평전〉 제공

성북예술창작터

이곳은 화가 오원 장승업(1843~1897)이 작품 활동하던 장소이다. 장승업은 조선 후기의 화가로 근대 회화의 기초를 다지며 토대를 마련한 인물이다. 오원은 필치가 대담하고 호방하면서도 소탈했다. 산수와 인물을 잘 그렸고, 안견, 김홍도와 함께 조선시대 3대 거장으로 일컬어졌다. 장승업은 칸영화제 경쟁부문에 올랐던 영화 '취화선'(임권택 감독)과 함께 재조명되었다.



최순우 옛집

전 국립 중앙박물관 관장이자 미술사학자인 해곡(兮谷) 최순우(1916년~1984년)가 1976년부터 1984년까지 거처했던 한옥이다. 최순우는 한국 문화재에 대한 깊은 애정과 뛰어난



안목으로 그 아름다움을 찾고 보존하는 데 일생을 바쳤던 분이다.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서서』와 『나는 내 것이 아름답다』를 집필한 장소이다.

1984년 최순우가 사망한 후 딸 최수정이 살다가 보존이 어려워지면서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2002년 12월 시민 성금으로 매입한 뒤 2004년 4월부터 일반에게 개방되었다. 문화유산의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 모금을 위하여 (재)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이 설립되면서 최순우 옛집은 이 재단법인의 기본자산으로 내셔널트러스트 시민문화유산 1호가 되었다. 이 집은 2006년에 등록문화재 제268호로 지정되었다.

안채는 사랑방, 안방, 건넌방이 있으며 사랑방은 최순우의 집필 공간이었다. 사랑방 위의 현판에는 ‘杜鵑啼深山(두문즉시심산, 문을 걸어 잠그니 바로 이곳이 산중 깊은 곳)’이라고 최순우의 글씨가 있으며, 뒤뜰로 난 사랑방 문 위에는 ‘午睡堂(오수당, 낮잠 자는 방)’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이는 단원 김홍도의 화첩에서 따온 글씨이다. 최순우는 스스로를 ‘오수노인(낮잠 자는 노인)’이라고 부르길 좋아했다. 건넌방은 딸이 기거하던 곳이다. 그곳에는 추사 김정희의 ‘梅心畵(매심사, 매화 마음을 가진 방)’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조지훈 집터 (방우산장)

조지훈(1920~1968)은 한국 현대시의 주류를 완성한 청록파 시인, 수필가, 한국학 연구가이다. 1920년 경북 영양에서 출생한 조지훈은 소월과 영랑에서 비롯하여 서정주와 유치환을 거쳐 청록파에 이르는 한국 현대시의 주류를 완성함으로써 20세기의 전반기와 후반기의 한국문학사에 연속성을 부여해준 시인이다. 전통적인 운율과 선(禪)의 미학을 현대적인 방법으로 결합한 것이 조지훈 시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청록집』, 『풀잎단장』, 『조지훈시선』, 『역사 앞에서』, 『여운』 등 그가 남긴 시집들은 모두 민족어의 보석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승무」, 「낙화」, 「고사」와 같은 시들은 지금도 널리 읊어지고 있는 시들이다. 매천 황현과 만해 한용운을 이어 조지훈은 지조를 목숨처럼 중히 여기는 지사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서대문 감옥에서 옥사한 일송 김동삼의 시신을 만해가 거두어 장례를 치를 때 심우장에 참례한 것이 열일곱(1937년)이었으니 조지훈이 뜻을 확립한 시기가 얼마나 일찍던가를 알 수 있다. 조지훈은 조부 조인석과 부친 조헌영으로부터 한학과 절의를 배우면서 민속학과 역사학을 자신의 전공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조선어학회의 큰사전 원고를 정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힌 국어학 지식이 더해져서 형성된 조지훈의 학문적 바탕은 현대교육만 받은 사람들로서는 짐작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넓고 깊었다. 광복이 되던 10월에 한글학회 국어교본 편찬원이 되고 11월에 진단학회 국사교본 편찬원이 되어 우리 손으로 된 최초의 국어교과서와 국사교과서를 편찬하였고 그 이후 1968년 기관지 확장으로 작고하기까지 조지훈이 저술한 『멋의 연구』, 『한국문화사서설』, 『한국민족운동사』, 『시의 원리』 등의 저서를 남겼다.

조지훈은 근면하면서 여유 있고 정직하면서 관대하고 근엄하면서 소탈한 현대의 선비였다. 매천이 절명의 순간에도 ‘창공을 비추는 촛불’로 자신의 죽음을 관조하였듯이 조지훈은 나라 잃은 시대에도 ‘태초에 멋이 있었다’는 신념을 지니고 초연한 기품을 잃지 않았다. 조지훈에게 멋은 저항과 죽음의 자리에서도 지녀야 할 삶의 척도이었다. 조지훈은 호탕한 멋과 준엄한 원칙 위에 재능과 교양과 인품이 조화를 이룬 인물이었다.

시인은 자신이 기거했던 곳을 모두 ‘방우산장(放牛山莊)’이라고 불렀다. 그의 방우산장은 1953년 신천지에 기고한 「방우산장기」에서 ‘설핏한 저녁 햇살 아래 내가 올라타고

풀피리를 희롱할 한 마리 소만 있으면 그 소가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내가 아랑곳할 것이 없기 때문' 이라고 말한 것에서 연유한다. 이는 '마음속에 소를 한 마리 키우면 직접 키우지 않아도 소를 키우는 것과 다름없다'는 '방우죽목우'로 그의 사상을 엿볼 수 있다.

보조국사 지눌의 호는 목우자(牧牛子)이며, 만해 한용운의 당호는 심우당(尋牛堂)임을 같이 알아두면 더욱 흥미롭다. 대체 그 놈의 소가 뭐길래, 찾고 키우고 놓아둔다는 걸까?

조지훈 시인은 이 곳 성북동에 살면서 박목월, 박두진 등과 함께 청록집을 출간하였다. 이른바 청록파 시인들이다. 조지훈 시인이 살던 그 때 그 집은 지금 없지만, 시인을 기념하고자 성북동 142-1번지 가로에 조지훈 '시인의 방—방우산장(放牛山莊)' 표지 기념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다. 방우산장 조형물은 파빌리온 형의 대리석 벽과 창호지 없는 격자문이 시인이 살았던 집 방향으로 열려있고, 그 위로 우리 전통 가옥의 처마와 그 아래에 마루가 있으며 마당같이 조성된 곳에는 의자들이 놓여 있다. 대리석벽 바깥에는 시인의 시 「낙화」가 새겨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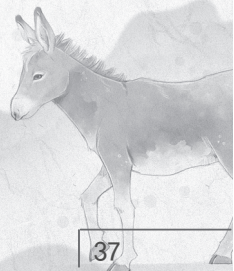
간송미술관

전형필은 조상 대대로 서울 최고의 부호였다. 그는 1938년에 이 막대한 재산으로 독립 운동가이자 서예가인 위창(葦滄) 오세창(吳世昌)과 함께 문화재들을 수집해서 간송미술관의 전신인 ‘보화각(葆華閣)’을 설립했다. ‘보화각’이라는 이름은 오세창이 명명한 것으로 ‘조선의 보배를 두는 집’이라는 뜻이다. 전형필은 서울의 보성중학교, 보성고등학교를 인수하는 등 교육사업도 하였지만, 보성학원에 재정사고가 발생하여 그 빚을 갚기 위해 가족들까지도 극심한 쪼들림에 시달려야했다. 그는 보성재단에서 빚을 갚지 못하자 학생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팔 수 있는 것은 다 팔아 정리했다. 서화와 도자기 몇 점만 팔아도 해결하겠지만 전형필은 끝까지 자신의 문화재 소장품들을 지켜냈다.

그는 재단의 빚을 모두 갚은 후 급성 신우염으로 쓰러져서 1962년에 만 56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국보급 문화재만도 10여 점이 넘고 청자상감운학문대병, 훈민정음 해례본, 동국정운 원본, 신윤복의 미인도와 김득신의 파적도 등 한국의 그 어떤 박물관도 따라갈 수 없는 높은 수준의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다.

기존 지정문화재는 국보 12점, 보물 10점, 서울시 지정문화재 4점. 최근 미인도 등 13점이 보물로 추가 지정되어 보물이 23점이 되었으며 문화재청과 협조로 조사, 지정이 진행되고 있어 국가지정문화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971년 보화각은 간송미술관으로 바뀌고 5월과 10월 두 번 공개전시를 하고 있다. 2006년 간송 전형필 탄생 100주년 기념 특별전 때는 관람객이 수백 미터에 이르는 장사진을 치게 되었다. 이처럼 고미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졌는데 성북동 간송미술관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 수가 없어서 2014년 3월부터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상설전시를 한다. 우리 조상의 숨결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친밀하게 느낄 수 있도록 외부 일반전시를 하는 것이다.



수연산방



이 고택은 상허 이태준이 29세였던 1933년에 지어 ‘수연산방(壽硯山房)’이란 당호를 짓고 1946년까지 거주하였던 곳이다. 이곳에서 이태준은 「달밤」, 「돌다리」 중편 「코스모스 피는 정」 이종명, 김유영, 이호석이 탈퇴하고 박태원, 이상, 박팔양이 입회한다. 1935년을 전후하여 유치진, 조용만이 탈퇴하게 되지만, 김유정, 김환태가 가입함으로써 구인회라는 명목에 걸맞게 9명의 회원 수를 유지했다.

1904년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난 이태준은 어릴 때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었다. 고아가 된 이태준은 고학 끝에 휘문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한 뒤 일본에서 학업을 이어간다. 1925년에 「오몽녀」를 발표하면서 문단에 나온 이태준은 1929년부터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한다. 1933년 발표한 「달밤」은 ‘성북동으로 이사 나와서 한 대엿새 되었을까, 그날 밤 나는 보던 신문을 머리맡에 밀어던지고 누워...’라는 문장으로 시작된다. 이것으로 보아 이태준은 1933년에 성북동에 정착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태준은 1946년 월북하기 전까지 고향인 철원에서 생활했던 2~3년을 제외하고 성북동에서 살면서 자신이 살던 집을 ‘수연산방’이라고 하고 방마다 죽향루, 문향루, 상심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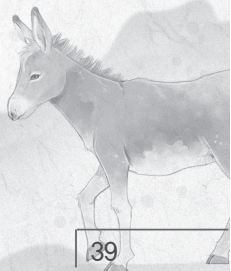
등의 이름을 붙였다.

이태준의 수필 「무서록」, 「목수들」에서 이 집을 지은 과정과 터의 내력 등이 묘사되어 있다. 이 가옥은 그가 이 수필에서 한옥의 맛과 구식 목수들의 인품을 칭송하였듯이 그의 바람이 담겨져 있는 집이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성북동 산골에 글방을 차린 그의 마음속을 들여다 볼 수 있다.

“내가 조선집을 지음은 이조 건축의 순박, 중후한 맛을 탐냄에 있음이라. (중략) 그들의 연장 자국은 무디나 미덥고 자연스럽다. 이들의 손에서 제작되는 우리 집은 아무리 요새 시쳇집이라도 얼마쯤 날림기는 적을 것을 은근히 기뻐하며 바란다.”

지금 수연산방은 그의 누님 따님인 조상명 씨가 한옥의 운치를 즐기며 차 한잔할 수 있는 공간이다. 조상명 씨는 10년 전인 1999년부터 이곳을 개방하여 찾집 ‘수연산방’을 열게 되었다.

심우장



심우장(尋牛莊)은 만해 한용운이 1933년부터 1944년까지 만년을 보내다가 세상을 떠난 곳이다. 한용운은 충청남도 홍성 출신으로 본관은 청주, 본명은 정옥이다. 용운(龍雲)은 법명이며, 만해(萬海, 卍海)는 아호이다. 만해는 1919년 승려 백용성(白龍城) 등과 불교계를 대표하여 독립선언 발기인 33인 중의 한 분으로 <3·1독립선언문>의 공약 삼장을 집필했다.

그는 처음 설악산 오세암에 입산하여 승려가 되었다가 시베리아와 만주를 순례한 후 28세 때 다시 설악산 백담사로 출가하여 정식으로 승려가 되었다. 1910년에는 불교의 변혁을 주장하는 『조선불교유신론』을 저술하였고, 1926년에는 시집 『님의 침묵』을 펴낸 뒤 민족운동단체인 신간회에 가입하였으며 1931년에는 조선불교청년동맹을 결성하였다.

이곳 성북동은 원래 성 밖 마을 북정골로 한적한 동네였다. 만해는 3·1운동으로 3년 옥고를 치르고 나와 성북동 골짜기 셋방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1933년에 승려 벽산(碧山) 김적음이 자신의 초당을 지으려고 준비한 땅 52평을 내어주자 조선일보사 사장 방응모 등 몇몇 유지들의 도움으로 땅을 더 사서 집을 짓고 ‘심우장’이라고 하였다.

‘심우장(尋牛莊)’이란 명칭은 선종(禪宗)의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과정을 잃어버린 소를 찾는 것에 비유한 열 가지 수행 단계 중 하나인 ‘자기의 본성인 소를 찾는다’는 심우(尋牛)에서 유래한 것이다.

한옥 중에서도 특이하게 남향(南向)이 아닌 북향(北向)으로 짓게 된 이유는 한용운 본인이 남향으로 하면 돌건물(조선총독부)이 보인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한용운은 일제의 만행에 맞서기 위해서 노력했으며 한때 최남선이 찾아왔을 때도 ‘내가 아는 육당(최남선의 아호)은 죽었으니 돌아가라’며 만나지도 않았다.

일본 형사가 한용운을 일제의 편으로 포섭하려는 목적으로 찾아왔었다. 그 형사는 만해가 문서에 도장만 찍으면 성북동의 토지 20만 평을 그냥 주겠다는 어마어마한 유혹을 제시했지만, 만해는 호통을 치며 왜놈한테 돈 받을 일 없으니 나가라며 보내버렸다는 일화도 전해온다. 만해는 겨울철에는 흑한, 여름철이면 흑서에 시달렸지만, 그는 이곳에서 태연하게 지냈다. 그는 해방 1년 전인 1944년에 조국 해방도 못 보고 이곳에서 사망하였다.

참고문헌

- 『정본 백석 시집』 (고형진 엮음, 문학동네, 2007)
『백석시전집』 (송준 편, 학영사, 2004)
『(증보판) 백석 전집』(김재용 엮음, 실천문학사, 2003)
『(백석시전집)』 (이동순 편, 창작과비평사, 1987)
『(다시 읽는 백석 시)』 (현대시비평연구회 편저, 소명출판, 2014)
『(백석평전)』 (안도현, 다산책방, 2014)
『한국시학연구』, 7권, (이승원, 「백석의 삶과 문학적 대응 양상 연구, 2002」
「백석의 동화시 연구」, (박명옥,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2005
『백석 1,2』, (김문주, 이상숙, 최동호 편저, 서정시학, 2012)



▶ 해설자 소개

해설자 : 박미산



약력

- 2005년 2월 「백석의 동화시」로 고려대학교 석사.
- 2008년 세계일보 신춘문예 시부문 등단.
- 2008년 2월 22일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아동성폭력 추방행사 100인 서명과 시낭송(용산 가족공원 시비건립)
- 2008년 12월 시집 『루낭의 지도』(아르코문예진흥기금 수혜) 발간.
- 2011년 한국번역원 초청으로 몽골 국립대학, 울란바토르 대학 등에서 시낭송 및 강의
- 2012년 11월 18~11월 24일 중국 인민대학 초청 강연 및 시낭송
- 2012년 2월 「정지용 산수시 연구」로 고려대학교 문학박사 취득.
- 2014년 1월 시집 『태양의 혀』 발간, 세종도서 문학나무 선정, 4쇄 발행.
- 2014년 조지훈 창작지원상 수상.
- 2016년 4월부터 현재까지 문화공간 〈백석, 흰 당나귀〉에서 “수요문화 강좌” 및 “수요 시(詩)토크” 기획

- 2015년 6월~2016년 6월까지 한글을 모르는 분들과 공부해서 2016년 7월 시집 『시, 잠자는 나를 깨우다』 발간. 현재는 그녀들과 수필공부를 하고 있음.
- 2017년 6월~2018년 현재까지 《세계일보》 「박미산의 마음을 여는 시」 연재.
- 2018년 3월~ 9월까지 《더리더》 「박미산의 맛있는 시읽기」 연재.
- 고려대, 방송대 출강, 디지털대학 초빙교수.

▶ 공연자 소개

공연자 : 어연경



어연경
EO YOUN KOUNG

- ▶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심청가 이수자
- ▶ 단국대 대학원 국악학과 박사수로
- ▶ 단국대학교 출강

수상 및 공연 경력

- 제12회 공주 박동진 판소리 명창, 명고 대회 명창부 최우수상 수상(2011년)
- 제21회 KBS 전국 국악대경연 은상 수상(2011년)
- 보성소리 심청가 완창(2015년)
- 제21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명창부 대통령상 수상(2018년)
- 제4회 멕시코 베니스후아레스 한국문화페스티벌 개폐막식 초청공연(2019년)

▶ 2019 서울문학기행 사업개요

사업목적

한국의 대표도시 서울과 서울사람의 정체성을 1920~1960년대 출간된 문학작품 현장 탐방을 통해 탐구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문학향유의 기회를 제공

추진방향

서울과 서울사람의 삶을 묘사한 작품 속 현장과 작가들의 체취를 작가, 문학평론가, 전문 해설가의 설명을 통해 찾아보는 본격 문학탐방 프로그램을 추구

사업운영

- 사업기간 : '19. 6.12 ~ 11.30(총 16회 운영)
- 참가대상 : 서울시민 640여명 (회당 40명)
- 운영 : 총 16회 중 평일(수 10시) 8회, 주말(토 14시) 8회로 분리 실시해 직장인과 학생 참여 유도, 혹서기인 8월 1회는 야간(18시) 기행
- 주요내용
 - 지역별 서울문학유적지 탐방
 - 서울소재 문학관 및 집터 탐방
 - 문학인 묘소 및 시비 탐방
- 접수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선착순 접수
 - 문의 : 02-772-9069 (사)서울도시문화연구원 www.suci.kr



사단법인 서울도시문화연구원
Seoul Urban Culture Institute association, inc.

설립목적

서울시의 문화예술 발전 정책에 부응하며, 서울 고유의 도시문화 창달과 바람직한 미래 서울문화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서울시민의 문화정체성을 정립하고, 풍요로운 문화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

설립취지를 달성하고자 평생교육,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시설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공헌을 통해 서울의 문화정체성 정립에 노력. 특히 서울 고향 만들기, 서울역사문화학교 운영, 서울도시문화 지도사 양성 같은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설립경위

2016년 4월29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받음.

실적

- 2016년 7월 25일~8월 31일까지 제1회 서울도시문화지도사 1,2,3급을 모집, 9월 19일 1급, 2급, 3급 등 각급 지도사 50명을 배출.
- 호현당 선비체험 캠프(서울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 2016년 7월~8월 3회, 서울시내 초등학교생 80여명 대상 운영)

- 이야기가 있는 한양도성 야행(서울시 한양도성도감과, 2016년 9월~10월 2회, 서울시민 60여명 대상 답사)
- 종로역사인물 열전(종로구청, 2016년 10월~12월, 10회, 서울시민 40여명 대상 행사)
- 서울골목탐험대 운영(서울시50플러스재단, 2017년 5월~10월 진행 중 5개 조 25명 운영)
- 언론인 역사생태탐방(삼성언론재단, 2017년 5월, 현역 언론인 4개조 70명 운영)
- 2017년 서울미래유산-그랜드투어(서울시 문화본부, 2017년 5월~11월, 매회 서울시민 40여명 대상 서울미래유산 25회 탐방 1000여명 참가)
- 2018년 서울미래유산-그랜드투어(서울시 문화본부, 2018년 5월~12월, 매회 서울시민 40여명 대상 서울미래유산 35회 탐방 1400여명 참가)
- ‘디지털 인문도시 프로젝트: 순성의 복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이 2018년부터 8월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지원하는 인문학 대중화 사업. 20개 인문학 강좌 주관)
- 2019년 서울미래유산-그랜드투어(서울시 문화본부, 2019년 4월~11월, 매회 서울시민 40여명 대상 서울미래유산 35회 탐방 진행 중)
- 참가신청 : 서울미래유산 <http://futureheritage.seoul.go.kr>)





2019 서울 문학 기행

발행처 : (사)서울도시문화연구원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4길 28-3

02) 772-9069, www.suci.kr

발행 및 편집인 : 서울도시문화연구원

원장 노주석